

NC 다이노스, 창단 9년 만에 프로야구 집어삼킨 '공룡군단'

1군 무대에 뛰어든지 7년 만에 거둔 성과

포수 양의지·간판타자 나성범 등 힘보태

NC 다이노스의 사상 첫 통합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모두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환호성을 질렀다.

창단 9년 만에 KBO리그를 평정한 순간이었다.

NC는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1차전을 이긴 후 2, 3차전을 내줬던 NC는 4, 5, 6차전을 내리 이겨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

창단 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NC는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며 2020년을 NC 다이노스의 해로 만들었다.

창단부터 NC와 함께 한 이동욱 감독은 수년동안 함께 고생한 선수들과 기쁨을 나눴다.

우승을 위해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택진 구단주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2011년 창단 후 9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1군 무대에 뛰어든지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NC는 지난 2011년 프로야구 8구단의 틀을 깨고 9번째 구단의 탄생을 알렸다. 2012년 퓨처스(2군) 리그에서 전력을 다진 NC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KBO리그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세계는 녹록지 않았다. 첫째 7위에 오르며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잠재력을 보여준 NC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2016년에 한국시리즈에 오르기도 했지만, 두산에 1, 2, 3, 4차전을 모두 내줘 준우승에 머물렀다.

2018년 투타 난조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NC는 2018년 수비코치였던 이동욱 코치를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5위에 올랐던 NC는 올해 시즌 초반부터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다.

원투펀치 드류 루친스키와 마이크 라이트가 맹활약을 펼쳤고, 구창모, 송명기 등 토종 투수진도 힘을 냈다.

NC 전력의 핵심인 포수 양의지와 간판타자 나성범, 애런 알테어, 박민

우, 박석민, 이명기 등 강타자들을 앞세워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창단 첫해부터 함께한 나성범, 박민우, 노진혁, 원종현 등은 NC의 주축선수로 성장했다. 박석민, 양의지 등 FA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200억 원이 훌쩍 넘는 출혈을 감수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NC는 1차전에서 선발 루친스키를 앞세워 이겼지만, 2, 3차전에서 노련한 두산 선수들이 밀려 시리즈 판도를 내렸다.

심기일전한 NC는 4차전에서 영건 송명기와 루친스키를 앞세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5차전에서는 선발 구창모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양의지의 결정적인 투런 홈런에 힘입어 시리즈 향방을 NC 쪽으로 가져왔다.

NC는 6차전에서 루친스키의 호투와 11안타를 친 타선의 집결력을 앞세워 두산의 추격을 뿌리쳤다.

루친스키는 올해 한국시리즈에 3차례 등판해 2승 1세이브를 올렸다.

NC 포수 양의지는 한국시리즈 MVP를 손에 넣었다.

이동욱 감독은 사령탑 부임 2년 만에 우승팀 감독에 이름을 올렸다.

서선욱기자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 한국시리즈 6차전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우승을 차지한 NC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NC 김택진 구단주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승 감격

이동욱 감독 "잊지 못할 추억 생겼다"



축승회에 참석한 황순현(왼쪽부터) NC 다이노스 대표, 김택진 구단주, 이동욱 감독. (사진=NC다이노스 제공)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구단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에 감격했다.

김 대표는 25일 구단을 통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소감을 밝혔

다. NC는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4-2로 따돌렸다.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친 NC는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새 역사를 만들었다.

2011년 말 창단한 NC는 김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빠르게 성장했다. 결실은 창단 9년 만에 찾아왔다. NC는 마침내 통합 우승 타이틀을 얻게 됐다.

김 대표는 우승 확정 후 선수단 세리머니를 위해 준비해놓은 '집행검'을 그라운드에서 공개, 챔피언이 된 기쁨을 함께 누렸다. 집행검은 리니지에

나오는 인기 아이템이다. 한국시리즈 6경기를 모두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직접 관람한 김 대표는 "KBO리그에서 9번째로 출발한 우리 구단이 창단 9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다. 우승의 날을 만들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팀을 이끌고 정상에 선 이동욱 감독은 "2020년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마쳐서 행복하다. 9년 동안 NC에서 함께하며 오늘을 위해 땀 흘린 것 같다. 모두 사랑하고 너무 고맙다.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 특히 올 시즌에는 주장 양의지가 많이 고생했는데, 값진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서선욱기자

'KS 준우승' 두산, 이제는 이별의 계절...주축선수들 FA

오재일·김재호·허경민 등 주축선수 대거 FA자적



축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별의 계절이다.

두산 베어스는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NC 다이노스에 2-4로 졌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두산은 결국 시리즈 4패(2승)째를 당하며 우승에 실패했다.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전에 이별은 시작되었다.

두산은 이번 겨울 주축 선수 대다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1루수 오재일과 2루수 최주환, 유격수 김재호, 3루수 허경민 등 주축 내야

수들이 모두 FA다. 중견수 정수빈과 선발 투수 유희관도 마찬가지다.

주요 선수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이들을 모두 붙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두산의 모기업은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공격과 수비를 두루 갖춘 두산 내야수들은 FA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팀이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외국인 선수 문제도 고민이다. 투수 크리스 플렉센과 라울 알칸타

라, 타자 호세 페르난데스는 올 시즌 맹활약을 펼쳤다.

플렉센은 포스트시즌에서 선발과 구원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역투를 하고, 알칸타라는 정규시즌 20승을 달성했다. 페르난데스는 199안타를 쳤다.

하지만 두산이 이들과 재계약할 수 있는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알칸타라와 페르난데스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플렉센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선수 뿐만 아니다. 코치들도 팀을 떠난다.

이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김원형 1군 투수 코치가 SK 와이번스 사령탑으로 선임돼 팀을 떠났다.

두산은 정재훈 볼펜코치가 투수코치를 맡아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를 치렀다.

한국시리즈를 마치고서도 이별은 계속된다. 김민재 작전·주루 코치는 SK로, 조인성 배터리 코치는 LG 트윈스로 향한다.

두산은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성공하며 강팀의 지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왕조를 구성했던 이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며 선수단 개편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시리즈의 준우승보다 더욱 씁쓸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김민정기자

KLPGA 대상 최혜진 "내년 4년 연속 수상 도전"

김효주, 상금왕·다승왕·최저타수상·인기상 등 싹쓸이
유해란 "평생 한 번 뿐인 신인상 받아 기쁘다"



최혜진(21) '2020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 '2020 KLPGA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 및 통제 하에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은 정부의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상 선수와 시상상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최혜진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최혜진은 시즌 마지막 대회인 SK

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시즌 내내 기록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대상 포인트 499점을 받은 최혜진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혜진은 "대상은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연속 수상을 해 기분이 정말 좋다"고 했고 "사실 '올해 내가 시상식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고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우순, 이요순, 신지애 이후 3회 연속 대상 수상에 대해 "그 기록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KLPGA 역

사에 내 이름을 올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4회 연속 대상 수상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도전하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다.

2021시즌 목표를 밝혔다. 최혜진은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실력과 성적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한 해였으면 좋겠다"며 "US오픈을 다녀와서 체력 위주로 훈련하고, 이후 기술적인 부분을 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효주(25)는 대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상금왕과 다승왕, 최저타수상, 특별상, 인기상,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등 다양한 상을 쓸어 담았다.

김효주는 "2014년 이후 KLPGA 투어에서 한 시즌 전체를 보냈다. 지난해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우승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했다. 하지만 KLPGA 투어에서 두 번의 우승과 함께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여러 타이틀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다. 만족스러운 한 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즌 전부터 목표로 설정했던 최저타수상을 받은 김효주는 "상금왕을 포함한 다른 타이틀도 갖고 싶었지만, 한 시즌 꾸준한 성적을 냈다는 지표인 최저타수상이 가장 욕심났다. 시즌 초부터 목표했던 타이틀이라 뿌듯하다"고 기뻐했다.

김민정기자

'평창올림픽 은메달' 팀 김, 3년 만에 여자컬링 태극마크

2020~2021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신화의 주인공인 여자컬링 '팀 김'이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획득했다.

"안경 선배" 스킵 김은정을 비롯해 김경애, 김초희, 김선영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는 24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20 KB 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경기도정(스킵 김은정)을 7-5로 이겼다.

이로써 대회 우승을 차지한 팀 김은 2017~2018시즌 이후 3년 만에 태

극마크를 탈환하며 내년 2월 세계컬링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터진 지도자 갑질 파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팀 김'은 이번 대회 전승 우승으로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예선을 6전 전승으로 통과한 팀 김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춘천시청(6-5승)을 꺾은 뒤 결승전에서 경기



도청까지 제압했다. 남자컬링에선 경기도컬링경기연맹이 경북체육회를 12-10으로 누르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미희기자